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이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기조절능력의 조절효과

나희정* · 장윤옥**¹⁾

경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가정교육전공* ·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가정교육과 교수**

Moderating Effects of Adolescents' Self-Regulatory Ability on the Relation between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and Coping Behaviors

Na, Hee-Jung* · Jang, Yoon-Ok**¹⁾

*Graduate School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Professor, Dept. of Home Economics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research the influence of experienced school violence as a victim on the coping behavior of adolescents and to investigate moderating effects of self regulatory ability which are the desirable coping behaviors as protection factor for adolescents who experienced as victim by school violence.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319 students from year 1 to year 3 of total 6 middle schools who experienced school violence as a victim in Daegu and the research tool is questionnaires which are consist of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scale, self regulatory ability scale, family healthy scale and coping behavior scale. In order to analyze the data of the study, factor analysis, relational regression, linear regression analysis and moderated multiple regressions were used.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ing. First, there was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adolescents who experienced school violence, self regulatory ability and the coping behaviors. Second, adolescents who experienced school violence as victim act more aggressive coping behavior than other coping behavior. Third, while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as victim influence adolescents' coping behaviors, it was found that self regulatory ability affect role in the regulation, cognitive self regulatory ability are in charge of controlling the aggressive coping behaviors.

1) 교신저자: Jang, Yoon-Ok, 1370 Sankyuk-dong, Puk-ku, Daegu,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Republic of Korea
Tel: 053-950-5928, Fax: 053-950-5924, E-mail: yojang@knu.ac.kr

2) 이 논문은 2012학년도 경북대학교 학술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ey words: 자기조절능력(self-regulatory ability), 대처행동(coping behaviors), 학교폭력피해경험(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I.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학교폭력은 오랫동안 한국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왔으나 최근 학교폭력에 관한 사건들이 언론을 통하여 빈번하게 거론되고 있다. 학교에서 학급친구들로부터의 집단 괴롭힘을 못 이겨 스스로 목숨을 끊은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 집단따돌림을 당한 학생이 친구를 칼로 찔러 숨지게 만든 사건 등을 계기로 학교폭력 문제는 교육 현장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청소년기는 신체발달이나 정신 및 인지발달이 더욱 가속화되고 심리적으로는 자기 독립과 정체성을 확립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이다. 게다가 부모의 기대와 사회적 요구가 더욱 커지는 시기여서 청소년은 더욱 많은 내적·외적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시기에 또래 친구들로부터 학교폭력을 경험하게 되면 청소년들의 생활만족도와 행복지수는 낮아지고, 이들의 역량 발달에도 불균형이 초래된다. 더 나아가 지속적으로 학교폭력에 시달려온 피해 청소년들은 학교결석, 가출 또는 다양한 형태의 정신장애를 일으키고(청소년폭력예방재단, 1996), 극단적으로는 자살을 선택하는 행동 등을 보이고 있어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Kim, 2002; Jang, 2011). 보다 큰 문제는 학교폭력은 청소년 개인에게 여러 가지 부작용 현상을 일으키며, 청소년기 이후 성인기의 신체적·정신적 문제, 비행, 범죄로까지 이어져 청소년 개인의 일생에 걸쳐 장기간동안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데 있다(Lee & Jung, 1998).

그러나 같은 학교폭력 상황에서도 모든 청소년들이 심리적·사회적인 부적응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자살과 같은 극단적인 대처행동을 선택하지는 않는다. 청소년들은 학교폭력피해를 경험했을 때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계획

을 세우거나 방법을 생각하며 스스로 정보를 탐색하는 등 학교폭력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행동을 취하거나, 부모님과 선생님께 정보나 충고를 구하여 직접적인 문제해결의 도움을 받거나 아니면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 줄 가족이나 친구를 찾아가 위안을 받으려는 등의 지지추구적인 대처행동을 하기도 하고(Kim, 2000),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회피하는 소극적 대처행동을 보이거나, 분노나 증오의 감정들로 다른 학생에게 보복의 형태로 맞서 싸우는 등의 공격적 대처행동을 하기도 한다(Park, Sohn, & Song, 1998).

이처럼 학교폭력 상황 하에서 청소년들은 다양한 대처행동들을 선택하고, 그 결과 대처행동은 청소년들이 심리상태를 건강하게 유지하고 학교폭력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기도 하지만 오히려 사회적·심리적 부적응을 야기·심화시켜 학교폭력피해 청소년들이 더 큰 피해자가 되게 하기도 한다. 또한 동일한 스트레스 상황 하에서 동일한 대처행동을 한다 하더라도 그 결과는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이는 스트레스 상황으로부터 그 개인을 보호하는 보호요인이 개인에 따라 다르기 때문일 것이다. 이에 학교폭력피해의 부정적인 영향을 완충시켜주고, 긍정적인 결과를 유도하는 보호요인들을 규명하는 연구들(Park, 2003; Nam & Han, 2007; Sung & Jung, 2007; Lee & Kim, 2012)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학교폭력에 대한 청소년들의 대처행동 선택이나 적응에 중재·완화적 역할을 하는 변인에 관해 연구해 온 선행연구들은 자아존중감(Kim, 2002; Yoo, 2005; An & Kim, 2008) 자기조절능력(Noh & Lee, 2010; Kim & Nahm, 2011), 자기통제(Choi & Lee, 2011), 정서조절(Choi, 2009; Ha, 2005), 정서지능(Kim, 2003) 등과 같은 개인적 요인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중 많은 선행연구들(Kim, 2003; Ha, 2005; Choi, 2009; Noh & Lee, 2010; Choi & Lee, 2011; Kim & Nahm, 2011)이 학교폭력피해 청소년의 대처행동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자기조절능력을 보고하고 있다. 자기조절능력은 자기통제보다 좀 더 능동적이고 적

극적인 과정으로, 학교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스스로 자신의 행동, 사고, 감정을 적극적으로 통제·조절하여 본인이 처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부적응을 예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는데 도움을 준다. 그 결과로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적극적, 지지추구적 대처행동을, 그리고 낮은 청소년일수록 회피적, 공격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한다(Kim, 2003; Ha, 2005; Kim & Nahm, 2011)는 것이다. 이처럼 학교폭력의 피해를 경험해도 청소년의 대처행동이 서로 다른 것은 청소년들의 적응유연성을 높여서 위험상황에 적절히 대처하게 하고 학교생활에도 더 잘 적응할 수 있게 하는 자기조절능력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한다.

따라서 오늘날과 같이 다양하고 복잡한 사회적 상황에서 학교폭력피해를 경험한 청소년이 바람직한 대처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보호요인인 자기조절능력 및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고 하겠다. 그러나 학교폭력피해 상황 하에서 청소년이 심리적·신체적 안정을 유지하고, 위험상황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보호요인으로 기능하고 대처행동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조절요인으로 작용하는 자기조절능력의 역할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성 있는 결과들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에 관한 심층적인 연구 또한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중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학교폭력피해 경험 및 자기조절능력과 대처행동과의 상관관계를 먼저 알아보고, 학교폭력피해경험이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후에 학교폭력피해경험과 대처행동과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조절효과를 입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서 학교폭력피해를 경험한 청소년들이 대처행동을 선택하는데 도움을 주는 여러 요인들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들이나 학부모들에게 교육을 할 때 자기조절능력의 역할이나 기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그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이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거나 자기조절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교사나 상담사들이 학교폭력피해 상담 시 나아가

야 할 지향점을 찾는 데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문제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 1)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이 대처행동(적극적, 내면적, 공격적, 회피적, 지지추구적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 2)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과 대처행동과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인지적, 행동적, 정서적 자기조절능력)은 조절효과가 있는가?

II.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고찰

1. 학교폭력피해경험

일반적으로 폭력이란 타인을 신체적으로 해칠 의도로서 수행한 행위와 그러한 의도를 가졌다고 인정되는 행위(Gelles & Straus, 1979)라고 정의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일반적 정의는 외부에 드러나기 쉬운 신체적인 폭력을 우선적으로 강조하고 있고, 심리적·언어적 폭력은 포함시키지 않는 등 폭력행동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폭력은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행사되고 있어서, 신체적 폭력으로 인한 피해만큼이나 심리적·정신적 폭력으로 인한 피해도 심각하다(Kim, 1997). 예를 들면 청소년들이 지속적으로 고의적인 집단 괴롭힘이나 따돌림, 금품갈취, 언어적 놀림, 헐뜯고 욕설을 경험할 때 받게 되는 심리적·정신적 피해는 신체적 피해보다 더 장기적으로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다.

Lee(1996)는 학교폭력을 자신보다 신체적, 심리적으로 약한 위치에 있는 학생에게 가하는 위협 또는 실제 행동이라고 정의하며, 학교폭력에 신체적 폭행, 언어적 폭력,

금품의 갈취, 성폭행, 집단적으로 따돌리기 등을 포함시키고 있다. 또 Kim(1997)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 발생하는 폭력도 포함한다고 정의한다. 이와 같이 학교폭력은 대상이나 장소, 폭력의 강도나 지속성 등에 따라서, 가해자보다는 피해자를 중심으로, 학교 내 혹은 학교 내·외 등 발생장소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학교폭력피해경험과 우울과의 관계를 연구한 Kim과 Jung(2007)은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이 우울에 영향을 미치며, 학교폭력피해경험이 많을수록 우울 수준이 높다고, 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Lee(2008)는 남·녀학생 모두 또래괴롭힘을 많이 경험할수록 외로움이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Han(2010)은 학교폭력의 가해와 피해를 동시에 경험한 청소년들은 학교폭력 가해 청소년들보다 공격성이 더 높지만 신체적·언어적·우회적 공격성, 흥분성, 부정성에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그리고 Kim과 Choi(2012)는 학교폭력피해경험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공격성이 더 높다고 보고한다. 학교폭력피해경험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성별, 생활수준, 학업스트레스, 친구지지, 교사지지를 통제한 상태에서 살펴본 연구에서도 학교폭력피해경험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며(Kim, Jang, & Min, 2011), 교우관계가 좋지 않고, 학교애착 역시 부족하여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고 한다(Kim, 2009).

2. 대처행동

대처행동이란 개인이 스트레스에 직면한 순간 스트레스 요인으로부터 받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행하는 노력으로 개인과 환경 사이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사고와 행동의 역동적 과정을 의미한다(Kim, 2003).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많은 청소년일수록 부정적 문제해결과 감정의 내면화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고, 성인에게 도움을 청하는 성인지지찾기 전략을 더 적게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집단괴롭힘 피해경험이 많은 남학생일수록 감정의 내면화 전략을, 여학생

은 부정적 문제해결과 감정의 내면화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Kim, 2004)는 것이다. 또한 또래괴롭힘 피해를 입은 남·녀학생 모두가 회피적 대처행동을 많이 하지만(Shin & Jung, 2002; Han, 2006)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소극/회피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한다(Lee, 2012)는 연구 결과들이 있다. 따돌림이나 괴롭힘, 놀림과 같은 또래관계에 어려움이 있거나 부정적인 경험을 많이 하고 있는 청소년은 혼자 고민하거나 우는 것과 같은 내면화 전략(Shim, 2000)이나 학교가기를 꺼리며 친구들과 상호작용을 피하는 등 소극적이고 회피적인 대응책을 많이 사용한다(Choi & Lim, 1999)고 한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Kim(2003)은 정서적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아동일수록 적극적, 지지추구적 대처행동을, 낮은 아동일수록 회피적, 공격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Kim(2002)은 중학생을 대상으로 가족환경이 스트레스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자신의 가족을 갈등이 높은 가족이라기 보다는 표현력이 높은 가족이라고, 또 표현력이 높은 가족이라기 보다는 응집력이 높은 가족이라고 지각한 청소년들이 적극적인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말한다. Yoo(2005)는 가족적응력이 높은 가정의 청소년일수록 적극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하고, 가족적응력과 가족응집성이 높은 가정의 청소년일수록 회피적 대처행동을 더 적게 한다고 보고한다. 이와 유사하게 가족응집성과 가족적응성이 높다고 지각한 아동도 적극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한다(Ha, 2008).

3. 자기조절능력

자기조절능력이란 외부의 자극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행동, 사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개인적 능력을 의미한다(Derryberry & Rothbart, 1988).

Bandura(1986)는 자기조절능력을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제시하면서, 인간을 외적 보상과 처벌에 의해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존재로 인식하기 보다는 스스로 자기를 조절하는 존재로 인식해야 한다고 주장하

고 있다. 또 많은 학자들이 자기조절능력 개념을 단순한 성격적 구조의 일부로서 행동의 도덕적 방향이나 동기적 방향의 원천인 심리적 대리(intrapsychic agent)로 보는 관점에서부터 단순히 학습된 과정으로 보는 관점에 이르기 까지 이론적으로 광범위하게 조망해 오고 있다(Lee, 2010).

또 자기조절능력은 자기통제(self-control), 자기점검(self-monitoring), 자기관리(self-management), 자기지시(self-instruction) 등의 용어와 혼재하여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Kopp(1982)는 자기통제와 자기조절은 개념적으로 유사하지만 자기조절은 자기통제의 상위개념으로서 통찰, 의식 및 책략생성과 같은 상위인지능력이 가능할 때 나타나는 능력이라고 한다. 이처럼 최근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자기조절능력을 상위인지능력에 초점을 두어 자기통제보다 좀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과정으로 정의하고 있다.

자기조절능력의 구성요소에 대한 견해 또한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지만, 자기조절능력과 학습에 관해 연구한 Huh(2004)는 자기조절능력의 구성요소를 인지적, 동기적, 행동적 요소로 분류하면서 이들 구성요소들은 서로 상호 작용하여 학생들의 자기조절학습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정서조절능력을 자기조절능력의 일부로 개념화하면서 행동조절, 자기조절, 자기통제 등의 요인과 관련지어 설명하고 있는 Jung과 Park(2010)은 자기조절능력을 행동조절 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정서 상태까지도 조절하는 것이라 보고 행동적 자기조절능력과 정서적 자기조절능력으로 분류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자기조절능력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Choi(2009)는 또래괴롭힘을 많이 받은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정서적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청소년들은 우울증상이 낮고, 정서적 자기조절능력이 낮은 청소년들은 우울증상이 높다고 보고하면서 이것은 또래괴롭힘 피해경험과 우울과의 관계에서 정서적 자기조절능력이 하나의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여 조절역할을 한 결과라고 한다. 또 Moon(2008)도 자기통제능력은 청소년의 정신건강 향상에 도움을 주기 때문에 자기통제능력이 높은 청소년들은 불안이나 우울, 혹은 자살충동과 같은 정신건강상의

문제를 더 적게 일으킨다고 한다. 그리고 자기조절능력 및 정서적 자기조절능력과 공격성 간에는 유의미한 부적 관련성이 있어서 자기조절능력이나 정서적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청소년(Park, 2010; Lee, Lee, & Jang, 2012)일수록 공격적인 행동과 같은 문제행동을 더 적게 하고, 또 자신이 속한 집단에 더 잘 적응하며 다른 아동들의 욕구와 자신의 욕구간에 조화를 잘 유지하기 때문에 또래 유능성이 높고 교사에게서도 높은 평가를 받는다(Noh, 2003; Huh, 2003)고 한다.

4. 학교폭력피해경험과 자기조절능력 및 대처행동

학교폭력 상황에서 청소년들의 대처행동선택이나 적응에 중재·완화적 역할을 하는 요인에 대해 연구한 많은 선행연구들(Kim, 2003; Park, 2003; Sung, & Chung, 2007; Choi, 2009; Kim, 2009; Choi, & Lee, 2011; Kim, & Nahm, 2011)은 청소년의 개인적 보호요인들로 내외통제성, 자기조절능력, 자기통제, 자아존중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 중 Kim(2003), Kim과 Nahm(2011), Choi(2009) 등은 외부의 자극에 대해 적극적으로 자신의 행동, 사고,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개인적 능력인 자기조절능력이 학교폭력과 같은 위기상황에서 청소년이 학교폭력으로 인한 부정적인 정서나 감정을 능동적으로 통제·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청소년 본인이 처한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부적응을 예방하게 할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결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중요한 중재·완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한다.

이들 연구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조절능력이 낮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활용가능한 모든 선택사항을 알아보기 전에 성숙하지 못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무계획적으로 선택사항을 탐색하는 경향이 있고, 감정조절에 실패한 사람은 중요한 상황적 단서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 감소되어 잘못된 행동을 하거나 정보를 고려하지 않는 결정을 한다(Keinan, 1987). 또 만족지연능력이 낮았던 아동은 청소년 시기에 참용성이 없고 충동적이라(Mishel, Shoda, & Peake, 1988)고 한다.

반면에 내적 조절능력이 높은 청소년일수록 스트레스 상황 시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조언을 구하거나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적극적인 대처행동을 더 많이 선택하는 경향이 있고(Ann, 2006), 자기통제력이 높은 대학생 역시 지금 당장의 욕구를 지연하고, 장기적인 목표달성을 위해 순간의 충동적인 행동을 자제하는 능력이 높아서 스트레스에 대처할 때 적극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한다(Ann & Ha, 2008). 또 학령기 전 시기에 자기통제력이 높았던 아동은 청소년 시기에 상대적으로 학업수행이 우수하고, 사회적 유능감이 높으며, 좌절감을 잘 다루고 스트레스를 효과적으로 극복하는 대처능력이 뛰어나다(Mishel, Shoda, & Peake, 1988)고 한다.

한편 외국의 많은 선행연구결과들(Folkman & Lazarus, 1986; Altshuler & Ruble, 1989; Thuber & Weisz, 1997)도 청소년들이 스트레스 상황에 대한 통제감이 높을 때는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는 문제중심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하지만, 통제감이 낮을 때는 문제로 인해 손상된 감정이나 정서를 위로하거나 완화시키려는 정서중심적인 대처행동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 밖에도 친구-소외관련 스트레스 상황에서의 아동의 대처행동에 대해 연구한 Kim(2003)은 정서적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아동일수록 문제를 직접 해결하기 위해 계획을 세우거나 방법을 생각하는 등의 적극적 대처행동이나 문제해결에 도움이 되는 사람에게 정보나 충고를 구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 줄 사람을 찾아가 감정의 위안을 받으려는 등의 지지추구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하는 반면, 정서적 자기조절능력이 낮은 아동일수록 문제 자체를 부정하면서 문제 상황에 직면하지 않으려 하고 문제의 직접적인 해결을 회피하는 등의 회피적 대처행동과 문제를 일으킨 대상에게 신체적·심리적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거나 욕, 비아냥, 신경질과 같은 언어적 폭력을 가하는 등의 공격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말한다. 또한 아동의 자기조절능력과 스트레스 대처행동 간의 관계에 관한 연구(Kim & Nahm, 2011)에서 정서적,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아동일수록 적극적, 지지추구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에 낮은 아동은 공격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사용함을 밝히고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대구광역시 소재한 6개 학교의 중학교 1, 2, 3학년 학생들 중 학교폭력을 경험한 경험이 있는 학생들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구대상자는 남학생이 183명(57.4%), 여학생이 136명(42.6%)이고, 1학년이 73명(22.9%), 2학년이 117명(36.7%), 3학년이 129명(40.4%)이다. 자신의 생활수준을 ‘중’이라고 생각하는 중학생이 153명(48%), 학업성적을 ‘중’이라고 생각하는 중학생이 145명(45.4%), 학교생활만족도를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중학생이 139명(43.6%), 그리고 본인의 체격 정도를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중학생이 159명(49.8%)으로 가장 많았다. 아버지의 연령은 ‘40~49세’가 243명(76.2%), 어머니의 경우도 ‘40~49세’가 257명(80.6%)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학력은 아버지의 경우 ‘대학교 졸업’이 184명(57.7%), 어머니의 경우도 ‘대학교 졸업’이 158명(49.5%)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직업은 아버지의 경우 ‘자영업’이 84명(26.3%)으로 가장 많고, ‘전문직’이 41명(12.9%)이었으며, 어머니의 경우 ‘무직·전업주부’가 115명(36.1%)으로 가장 많고, ‘전문직’이 47명(14.7%)의 순으로 분포되어 있다.

2. 연구절차

본 조사에 앞서 2012년 10월 1일에 대구광역시에 소재하는 중학교의 학생 9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예비조사의 분석결과를 기초로 질문지를 수정·보완한 다음 2012년 11월 6~9일 사이에 걸쳐 대구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는 6개 중학교의 남·여 학생 700명에게 질문지를 배부하여 본 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연구자가 직접 해당 학급의 담당 교사를 통해 질문지를 학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amples

| | | | (N=319) | | |
|------------------------|-----------------------|--------------|--------------------|-----------------------|--------------|
| variables | category | frequency(%) | Variables | category | frequency(%) |
| sex | male | 183(57.4) | grade | a first | 73(22.9) |
| | female | 136(42.6) | | second | 117(36.7) |
| scholastic achievement | high | 15(4.7) | | third | 129(40.4) |
| | medium high | 40(12.5) | economic level | high | 19(6.0) |
| | medium | 145(45.4) | | medium high | 102(32.0) |
| | medium low | 79(24.8) | | medium | 153(48.0) |
| | low | 40(12.5) | | medium low | 40(12.5) |
| | | | | low | 5(1.6) |
| school satisfaction | very satisfaction | 17(5.3) | physical build | very tall | 7(2.2) |
| | satisfaction | 63(19.7) | | tall | 85(26.6) |
| | normal | 139(43.6) | | normal | 159(49.8) |
| | dissatisfaction | 85(26.6) | | small | 63(19.7) |
| | very dissatisfaction | 15(4.7) | | very small | 5(1.6) |
| father's age | 30~39years | 6(1.9) | mother's age | 30~39years | 32(10.0) |
| | 40~49years | 243(76.2) | | 40~49years | 257(80.6) |
| | more than 50 | 64(20.1) | | more than 50 | 25(7.8) |
| | non-response | 6(1.9) | | non-response | 5(1.6) |
| father's education | under middle school | 3(9.0) | mother's education | under middle school | 5(1.6) |
| | high school | 77(24.1) | | high school | 106(33.2) |
| | collage | 17(5.3) | | collage | 24(7.5) |
| | university | 184(57.7) | | university | 158(49.5) |
| | above graduate school | 33(10.3) | | above graduate school | 22(6.9) |
| | non-response | 8(1.6) | | non-response | 4(1.3) |
| father's job | agriculture | 12(3.8) | mother's job | agriculture | 5(1.6) |
| | independent business | 84(26.3) | | independent business | 42(13.2) |
| | contingent job | 13(4.1) | | contingent job | 14(4.4) |
| | production job | 29(9.1) | | production job | 10(3.1) |
| | office job | 67(21.0) | | office job | 38(11.9) |
| | service job | 21(6.6) | | service job | 31(9.7) |
| | administration | 36(11.3) | | administration | 10(3.1) |
| | specialized job | 41(12.9) | | specialized job | 47(14.7) |
| | inoccupation | 5(1.6) | | inoccupation | 115(36.1) |
| | else | 6(1.9) | | else | 2(0.6) |
| | non-response | 5(1.6) | | non-response | 5(1.6) |
| total | | 319(100) | total | | 319(100) |

생들에게 배부·작성하도록 하고 회수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졌다. 회수된 질문지는 680부였으며, 부실기재 되었거나 불성실하게 응답한 질문지를 제외한 590부를 분석했다. 이 중 학교폭력피해경험 유형에 관계없이 학교폭력피해경험이 한번이라도 있다고 기입한 319부를 최종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

1) 학교폭력피해경험 척도

학교폭력피해경험 척도는 Do(1999), Lee와 Kwak(2000), 청소년폭력예방재단(2006)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중학생의 수준에 적합한 어휘 및 문장으로 수정한 다음 총 3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유형별로 폭력의 빈도와 강도를 측

Table 2. The results for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self regulatory scale

| self regulatory | Eigen-value | Pct of Var. | Cronbach α |
|---------------------------|-------------|-------------|-------------------|
| cognitive self regulatory | 4.315 | 17.261 | .81 |
| active self regulatory | 3.759 | 15.035 | .79 |
| emotional self regulatory | 3.362 | 13.447 | .83 |

정하였다. 본 척도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6개의 하위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요인부하량이 .30 이하인 4문항을 제외한 신체적(6문항), 물적(3문항), 관계적(6문항), 언어적(4문항), 구조적(5문항), 사이버(4문항) 폭력피해경험의 28문항을 학교폭력피해경험 척도로 사용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폭력의 빈도는 ‘자주 있었다’에 5점부터 ‘전혀 없다’에 1점을 주었으며, 폭력의 강도는 ‘아주 강함’에 5점부터 ‘아주 약함’에 1점을 주었다. 그리고 학교폭력피해경험 정도는 폭력의 빈도와 강도를 곱한 점수를 사용하였으며, 이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폭력피해경험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척도의 신뢰도 Cronbach α 는 .76이다.

2) 자기조절능력 척도

자기조절능력 척도는 Kim과 Kim(2003), Huh(2004), Lee(2007)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중학교 학생의 수준에 적합한 어휘 및 문장으로 수정한 다음 총 2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척도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3개의 하위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요인부하량이 .30 이하인 2문항을 제외한 23문항을 자기조절능력 척도로 사용하였다.

요인 1은 스스로 어떤 것을 인식하거나 지각하면서 자기 자신의 감정이나 의지를 인지적 차원에서 조절할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인지적 자기조절능력(9문항)으로, 요인 2는 위험 상황에서 충동통제와 만족지연을 통해 행동을 조절할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행동적 자기조절능력(8문항)으로, 요인 3은 외롭거나 슬프고 불안한 정서를 긍정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내용들을 포함하는 문

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정서적 자기조절능력(6문항)으로 명명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항상 그렇다’에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자기조절능력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와 신뢰도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3) 대처행동 척도

대처행동 척도는 Min과 Yoo(1998), Shin과 Jung(2002), Kim(2004)의 척도를 기초로 하여 중학교 학생의 수준에 적합한 어휘 및 문장으로 수정한 다음 총 4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척도의 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5개의 하위요인이 추출되었으며 요인부하량이 .30 이하인 6문항을 제외한 42문항을 대처행동 척도로 사용하였다.

요인 1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하고 실행해 보거나 더 건강해지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것 등의 대처행동들을 포함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적극적 대처행동(12문항)으로, 요인 2는 혼자 조용히 울거나, 일이 꿈이었으면 하고 바라는 등의 대처행동들을 포함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내면적 대처행동(7문항)으로, 요인 3은 상대방을 똑같이 때리거나 놀리고 욕을 하는 등의 대처행동들을 포함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공격적 대처행동(9문항)으로, 요인 4는 아무 일 없는 듯 지내거나,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등의 대처행동들을 포함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회피적 대처행동(7문항)으로, 요인 5는 부모님, 친척, 교사, 또래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조언을 얻는 등의 대처행동들을 포함하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

Table 3. The results for factor analysis and reliability analysis of coping behavior scale

| coping behavior | Eigen-value | Pct of Var. | Cronbach α |
|---------------------------|-------------|-------------|-------------------|
| active coping | 5.871 | 11.741 | .83 |
| passive coping | 5.461 | 10.922 | .78 |
| aggressive coping | 4.266 | 8.531 | .89 |
| avoidance coping | 3.794 | 7.587 | .63 |
| supportive seeking coping | 3.750 | 7.499 | .72 |

므로 지지추구적 대처행동(7문항)으로 명명하였다.

각 문항은 Likert식 5점 척도로 ‘항상 그렇다’에 5점부터 ‘전혀 그렇지 않다’에 1점을 주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대처행동 척도의 요인분석 결과와 신뢰도 분석결과는 <Table 3>과 같다.

4. 자료분석 및 통계적 처리

본 연구에서 자료분석은 SPSS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전산 처리하였다. 본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와 백분율을, 각 측정도구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요인분석 및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문제인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 및 자기조절능력과 대처행동 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피어슨의 적률상관분석,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이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 그리고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과 대처행동과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

조사대상자들의 학교폭력피해경험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의 <Table 4>와 같다. 조사대상 학생 590명 중 학교폭력을 경험한 학생은 319명(54.0%)이며, 이들 중 남학생은 183명(31.0%), 여학생은 136명(23.0%)으로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폭력을 많이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연구대상자들의 학교폭력피해경험 유형별 경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Table 5>와 같다.

의도적으로 집단에서 따돌림을 당한 경험과 같은 관계적 폭력피해경험이 224명(70.2%)으로 가장 많았고, 심한 욕이나 폭언으로 인해 불쾌감을 느낀 경험과 같은 언어적 폭력피해경험이 214명(67.1%), 고의적으로 휘두른 주먹이나 흉기, 물건 등으로 인해 신체적인 상해를 입은 경험과 같은 ‘신체적 폭력피해경험’이 182명(57.1%), 돈이나 고가의 옷, 핸드폰 등의 물건을 빼앗기는 물적 피해를 입은 경험과 같은 ‘물적 폭력피해경험’이 123명(38.6%), 메신저 쪽지로 놀림이나 심한 욕설로 기분 나빴던 경험과 같은

Table 4.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tendency by sex

| sex | violence | |
|----------------|------------|------------|
| | yes | no |
| male student | 183(31.0%) | 146(24.7%) |
| female student | 136(23.1%) | 125(21.2%) |
| total | 319(54.1%) | 271(45.9%) |

(N=590)

Table 5.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tendency by style

(N=319)

|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 total |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 | | |
|-------------------------------|------------|-------------------------------|-----|----------|------|
| | | frequency | | strength | |
| | | M | SD | M | SD |
| physically violence | 182(57.1%) | 1.60 | .76 | 1.73 | .94 |
| property violence | 123(38.6%) | 1.33 | .57 | 1.33 | .65 |
| relational violence | 224(70.2%) | 1.59 | .69 | 1.67 | .82 |
| verbalism violence | 214(67.1%) | 1.76 | .86 | 1.85 | 1.00 |
| structural violence | 85(26.6%) | 1.16 | .48 | 1.19 | .57 |
| cyber violence | 70(21.9%) | 1.19 | .43 | 1.23 | .50 |

‘사이버 폭력피해경험’이 85명(26.6%), 친구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심부름을 강요당한 경험과 같은 ‘구조적 폭력피해경험’이 70명(21.9%)으로 나타났다.

2.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이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이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이들간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이 조절효과를 갖는지를 검증하기 전에 학교폭력피해경험과 자기조절능력, 그리고 대처행동간의 다중공선성을 확인하기 위해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폭력피해경험은 대처행동의 하위요인인 공격적 대처행동(.094)과 유의한 정

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기조절능력의 하위요인인 행동적(r=-.308) 및 정서적 자기조절능력(r=-.167)과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자기조절능력의 하위요인인 인지적 자기조절능력은 적극적(r=.536), 지지추구적 대처행동(r=.315)과 정적 상관이 있으며, 공격적 대처행동(r=-.176)과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조절능력의 하위요인인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은 적극적 대처행동(r=.289) 및 지지추구적 대처행동(r=.202)과는 정적 상관, 공격적 대처행동(r=-.510)과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서적 자기조절능력은 적극적(r=.231) 및 지지추구적 대처행동(r=.248)과는 정적 상관이 있고, 내면적(r=-.302), 공격적(r=-.256), 그리고 회피적 대처행동(r=-.255)과는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폭력피해경

Table 6. Correlation of adolescents'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self regulation and coping behaviors

(N=319)

| | 1 | 2 | 3 | 4 | 5 | 6 | 7 | 8 |
|---------------------------------|---------|---------|---------|---------|---------|--------|--------|------|
| 1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 - | | | | | | | |
| 2 cognitive self regulatory | .101 | - | | | | | | |
| 3 active self regulatory | -.308** | .132* | - | | | | | |
| 4 emotional self regulatory | -.167** | -.034 | .502** | - | | | | |
| 5 active coping | -.014 | .536** | .289** | .231** | - | | | |
| 6 passive coping | -.051 | -.057 | -.086 | -.302** | .140* | - | | |
| 7 aggressive coping | .094* | -.176** | -.510** | -.256** | -.146** | .268** | - | |
| 8 avoidance coping | .063 | -.015 | -.095 | -.255** | .189** | .491** | .244** | - |
| 9 supportive seeking coping | -.014 | .315** | .202** | .248** | .457** | .038 | -.040 | .029 |

* p<.05 ** p<.01 *** p<.001

Table 7. Effects of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on coping behaviors

(N=319)

| violence | coping behavior | active coping | | passive coping | | aggressive coping | | avoidance coping | | supportive seeking coping | |
|----------------|-----------------|-------------------------------|---------|----------------|---------|-------------------|---------|------------------|---------|---------------------------|---------|
| | | B | β | B | β | B | β | B | β | B | β |
| | |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 .000 | -.014 | -.001 | .001 | .001 | .094* | .001 | .063 | .000 |
| F | .059 | | .812 | | 2.829 | | 1.256 | | .059 | | |
| R ² | -.003 | | .001 | | .010 | | .001 | | -.003 | | |

* p<.05

험과 자기조절능력, 그리고 대처행동간에 다중공선성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이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순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 경험은 공격적 대처행동($\beta=.094$)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들은 학교폭력 피해경험이 많을수록 공격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겠다. 그러나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은 적극적, 내면적, 회피적, 지지추구적 대처행동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가해청소년과 맞서 싸우는 등의 공격적 대처행동을 한다(Kim & Choi, 2012; Park, Shon, & Song, 1998)는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 청소년기는 급속한 신체 및 생리적 성숙이 진행되는 단계로 본능적으로 불안이 발생하며, 감정의 급격한 변화와 퇴행적 행동이 증가하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 부당하게 가해지는 구타와 폭력행위를 경험하거나 또는 무시당하거나 언어적인 모욕을 당하는 등의 학교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은 학교폭력경험에 대한 분노, 억울함, 복수심, 증오와 같은 부정적인 감정들이 더욱 많이 생긴다. 따라서 청소년들이 학교폭력을 경험했을 때 부정적인 감정들과 불안을 오피하기 위해 위장된 공격행동, 자기과시적 행동인 공격적 대처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학교폭력피해 아동이 적극적 대처행동을 가장 많이 한다는 Kim과 Jung(2009), Kim(2000)의

연구결과와는 다소 다른데 이는 연구대상의 연령이 서로 다르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청소년기 중학생들에 비해 초등학교 시기의 아동은 문제상황에 대한 대처행동이 훨씬 즉각적이고 단순하기 때문에 학교폭력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이러한 폭력에 대한 대처행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이나 또래, 교사, 부모와의 관계를 생각하지 않고 가능한 빨리 문제상황을 해결하고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황으로 되돌아가기 위해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등의 적극적 대처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3.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과 공격적 대처행동과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조절효과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던 공격적 대처행동과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의 조절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1단계에서는 학교폭력피해경험, 자기조절능력을 포함한 다중회귀분석을, 2단계에서는 학교폭력피해경험과 자기조절능력의 상호작용항을 추가적으로 투입하는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8>과 같다.

<Table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1단계에서 학교폭력피해경험과 자기조절능력은 공격적 대처행동을 28% 설명하였으며, 조절변수인 행동적($\beta=-.519$), 인지적($\beta=-.105$) 자기조절능력 순으로 공격적 대처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은 행동적, 인지적 자기조절능력이 낮을수록 공격적 대처행동을 많이

Table 8. Moderating effects of adolescents' self-regulatory ability on the relation between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and aggressive coping behaviors

| variable | aggressive coping behavior | | aggressive coping behaviors | |
|----------------------------------|----------------------------|-----------|-----------------------------|-----------|
| | B | β | 2 step | |
| | | | B | β |
|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A) | -0.001 | -.058 | -0.001 | -.088 |
| cognitive self regulatory(B) | -.016 | -.105* | -.013 | -.089 |
| active self regulatory(C) | -.087 | -.519*** | -.079 | -.468*** |
| emotional self regulatory(D) | -.004 | -.019 | -.006 | -.029 |
| A × B | | | .000 | -.129** |
| A × C | | | .000 | -.098 |
| A × D | | | .000 | -.042 |
| Constant | | 2.594 | | 2.578 |
| F | | 31.935*** | | 21.050*** |
| adjust R ² | | .280 | | .306 |

(N=319)

* p<.05 ** p<.01 *** p<.001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R²이 1단계보다 2.6% 증가하여 변수들이 전체 변량의 30.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조절변수인 행동적(β=-.468) 자기조절능력이 공격적 대처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청소년은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이 낮을수록 공격적 대처행동을 많이 사용한다고 하겠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학교폭력을 많이 경험한 청소년이라 할지라도 행동적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청소년들은 지속적인 학교폭력으로 인해 당장은 힘들지만 자신의 더 큰 목표를 위해 겉으로 표출되는 행동을 자제하고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적인 대처행동을 적게 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또한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과 인지적 자기조절능력의 상호작용항(β=-.129)은 공격적 대처행동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폭력 피해경험과 공격적 대처행동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조절효과를 갖는다고 하겠다. 그러나 학교폭력피해경험과 행동적, 정서적 자기조절능력의 상호작용항은 학교폭력피해경험과 공격적 대처행동과의 관계에서 유의한 조절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과 공격적 대처행동과의 관계에서의 인지적 자기조절능력의 조절효과를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우선 인지적 자기조절능력의

중양값을 기준으로 인지적 자기조절능력 점수가 중양값보다 낮은 청소년들을 인지적 자기조절능력 하 집단(M=2.92, SD=.67), 인지적 자기조절능력 점수가 중양값보다 높은 청소년들을 인지적 자기조절능력 상 집단(M=4.46, SD=.20)으로 구분하여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ure 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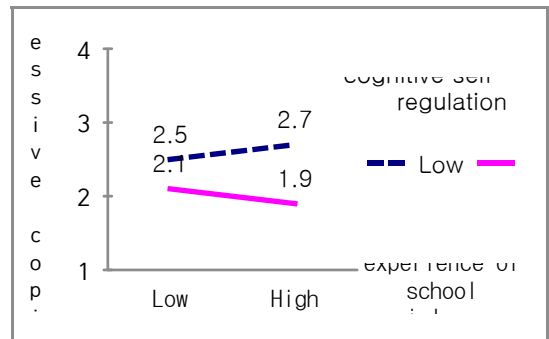


Figure 1. Moderating effects of adolescents' cognitive self-regulatory ability on the relation between experience of school violence and aggressive coping behaviors

<Figur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학교폭력피해경험이 적은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인지적 자기조절능력이 낮거나 높은 경우에 둘 다 공격적 대처행동을 유사한 정도로 사

용하지만, 학교폭력피해경험이 많은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인지적 자기조절능력이 낮은 청소년들이 높은 청소년들보다 공격적 대처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폭력피해경험이 적은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인지적 자기조절능력의 수준에 따라 공격적 대처행동의 선택에 차이가 없었지만, 학교폭력피해경험이 많은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인지적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청소년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하면서 문제의 발생과정과 원인을 파악하며, 인지적 차원에서 부정적인 행동을 억제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계획을 세워 근본적인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공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공격적 대처행동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조절능력이 낮은 아동일수록 공격적 대처행동을 한다는 연구결과(Kim, 2003; Kim & Nahm, 2011)와 대부분 일치하며, 정서조절 능력이 낮은 청소년이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된 행동문제를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Lee, Lee, & Jang, 2012), 학생의 스트레스가 자기조절능력을 매개로 공격적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Oh, 2009)와도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이는 자기조절능력이 낮은 학생들이 보이는 충동적 경향들이 학교폭력경험과 맞물려 공격적 대처행동으로 표현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V. 결론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이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학교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대처행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호요인인 자기조절능력의 조절효과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통해서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폭력을 많이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공격적 대처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

교폭력의 피해와 가해를 동시에 경험한 청소년들은 학교폭력의 가해만 경험한 청소년들 보다 공격적 행동을 많이 한다는 연구결과(Han, 2010)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하겠다. 특히 학교폭력의 피해와 가해를 동시에 경험한 청소년들은 가해행위만 한 청소년들에 비해 여러 해에 걸쳐 폭력 행위를 지속하는 경향이 더 높았다는 연구결과(Park, 2009)를 볼 때, 이는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다시 싸움이나 욕설 등의 공격적 대처행동으로 이어져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또 다시 가해자가 되는 폭력의 악순환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둘째,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이 대처행동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자기조절능력이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인지적 자기조절능력은 학교폭력피해경험과의 관계에서 공격적 대처행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였다. 학교폭력피해경험이 적은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인지적 자기조절능력의 수준에 따라 공격적 대처행동의 선택에 차이가 없었지만, 학교폭력피해경험이 많은 청소년들에 있어서는 인지적 자기조절능력이 높은 청소년들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심사숙고하면서 문제의 발생과정과 원인을 파악하며, 인지적 차원에서 부정적인 행동을 억제하여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계획을 세워 근본적인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즉각적인 공격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공격적 대처행동을 덜 사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인지적 자기조절능력이 학교폭력경험과 같은 심각한 스트레스 상황에서 학교폭력이 주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상황에서 스스로 자기적응력을 향상시키는 개인적 보호요인으로 기능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인지적 자기조절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부모의 온정적인 양육태도가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자기조절능력을 발달시켜(김문신·김광웅, 2003; 이영주, 2007) 어떤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스스로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힘을 길러주므로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해 수용적인 태도를 가지며, 자녀를 온정적으로 양육하여 자녀의 자기조절능력 발달에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본 연구결과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학교폭

력 피해경험이 더 많고, 성별에 따라 자기조절능력의 수준에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대처행동에 있어서 성별과 학년에 따라 자기조절능력의 조절효과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면 성별 및 학년에 따른 보다 구체적인 대처행동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이 결과를 일반화시킬 수 있는 더욱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과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체계적인 자기조절능력 향상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그리고 학부모에게는 부모교육을 통하여 자녀들의 자기조절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인성교육의 정보를 제공하는 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오늘날 문제시 되는 학교폭력경험이 청소년의 대처행동과의 관계에서 자기조절능력이 조절역할을 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다는데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김준호 (1997). 청소년폭력: 한국의 학교폭력에 대한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 박경숙 · 손희권 · 송혜정 (1998). 학생의 왕따(집단따돌림 및 괴롭힘)현상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이준형 (1996). 학원폭력의 유형과 현황분석: 학교폭력 현실과 대책보고서, 96-1. 한국청소년교육연구소.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1996). 학교폭력, 고통 받는 아이들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한울림.
- 청소년폭력예방재단 (2006). 학교폭력 실태조사. 서울: 청소년폭력예방재단.
- Altshuler, J. L., & Ruble, D. N. (1989). Developmental changes in children's awareness of strategies for coping with uncontrollable stress. *Child Development*, 60, 1337-1349.
- An, C. H., & Kim, J. I. (2008). Self-esteem, marital communication, family cohesion and adaptability, and conflicts resolution strategies. *Journal of Korean Family Therapy*, 16(2), 95-114.
- An, H. J. (2006). *Interaction effects on rest anxiety of high school students by the academic self-regulation motivation and stress coping styles*. Unpublished master's thesis, Ewha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An, S. Y., & Ha, C. S. (2008). The relationship among self-control, stress perception, and coping style of the university students: Focusing on a local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9(2), 391-403.
- Bandura, A. (1986). *Social foundations of thought and action: A social cognitive theor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Choi, B. G., & Lim, J. Y. (1999). The influence of peer victimization on children's loneliness and anxiety.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7(5), 111-121.
- Choi, J. Y. (2009). *The moderating effects of emotional regulation strategies on the relationships between adolescents' experience of bullying and depress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Choi, Y. K., & Lee, J. Y. (2011). The relation between parenting and children's depression: testing the mediating effects of positive stress-coping behavior and self-control. *The Journal of Child Education*, 20(2), 235-251.
- Compas, B. E., Malcarne, V. L., & Fondacaro, K. M. (1988). Coping with stressful events in older children and young adolescents.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3), 405-411.
- Derrybry, D., & Rothbart, M. K. (1988). Arousal, affect and attention as components of temperament.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6), 958-966.
- Do, G. B. (1999).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and countermeasure device of middle school student's violence. *Journal of Social Welfare Development*, 5(2), 247-266.

- Folkman, S., & Lazarus, R. S. (1986). Dynamics of stressful encounter: Cognitive appraisal, coping, and encounter outcom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0(5), 992-1003.
- Gelles, R. J., & Straus, M. (1979). Determinants of violence in the family: Towards a theoretical integration. In W. Burr, R. Hill, F. I. Nye and I. Russ(1979),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N.Y.: The Free Press.
- Ha, J. W. (2005). *The effects of children's recognized family relation and emotional regulation on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in their friendship*.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Ha, Y. J. (2008). *Parent's child-rearing attitudes, function of family and children's stress coping behavior types perceived by children from low income family*. Unpublished master's thesis, Myonggi University, Seoul, Korea.
- Han, S. Y. (2006). *Emotional regulation, coping behaviors, and social skills according to the types involved peer bully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 Han, S. Y. (2010). Communication with parents, self-esteem and shame and their relationship to aggression in bully and bully-victim groups.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17(1), 125-143.
- Huh, A. S. (2003). *Mother's attitude toward children's expressiveness and children's emotional regulation to peer competence*.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Huh, J. K. (2004). *Study on the scale development of self-regulation and the related variables of children in the school ag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Jang, Y. E. (2011). *Study on the effect of school violence of adolescent to suicidal behaviors: Moderating effect of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Jung, H. S., & Park, S. Y. (2010). The effects of family climate, peer support and self-esteem on children's self-regulation. *Koran Journal of Child studies*, 31(1), 19-33.
- Keinan, G. (1987). Decision-making under stress: Scanning of alternatives under controllable and uncontrollable threa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 639-644.
- Kim, E. K. (2009). The effect of abused experience on school adjustment mediated by Locus of control and empathic ability.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22(1), 37-56.
- Kim, G. S. (2002). Adolescents' school life adjustments present condition and guidance plan. *The Journal of Education*, 17(1), 1-15.
- Kim, J. M. (2004). A study on elementary children's coping strategies in peer victimization.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5(3), 793-807.
- Kim, J. Y., & Chung, Y. K. (2007).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ing practice and violent behaviors in adolescent. *Korean Journal of Family Social Work*, 19, 5-28.
- Kim, J. Y., & Nahm, E. Y. (2011).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al response to children's negative emotion and children's stress-coping behavior: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regulation. *Koran Journal of Child Studies*, 32(5), 13-26.
- Kim, J. Y., Jang, Y. E., & Min, J. A. (2011). A study on the effect of school violence to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Moderating effect of parent-child communication.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8(7), 209-234.
- Kim, K. E., & Choi, E. H. (2010). The effect of family strength on adolescents' adjustment at school: Focused on mediation effect of self-resilience. *Journal of Korean Living Science Association*, 19(4), 641-653.
- Kim, K. E., & Choi, E. H. (2012). A study on the effect of school violence victimization on adolescents' cyber violence: focus on mediating effect of aggression. *Korean Journal of Youth Welfare*, 14(3), 259-283.

- Kim, K. S. (2003). *Relationships among children's emotional intelligence, stress controllability and coping behavior*.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ongik University, Seoul, Korea.
- Kim, M. G. (2000). *Difference of the degree of perceiving stress and behavior coping stress according as a grade and gender*.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Daegu, Korea.
- Kim, M. S., & Kim, G. U. (2003). The effect of mother's emotional expressiveness and maternal attitudes toward children's expressiveness on the children's self-regulation. *The Korean Journal of Association for Play Therapy*, 6(1), 3-13.
- Kim, Y. G. (2002). *Influences of family environment on self-esteem and stress coping strategy in junior high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ungbuk University, Cheongju, Korea.
- Kim, Y. K., & Chung, M. J. (2009). The role of social support and locus of control as stress coping behaviors in victims of school violence.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7(8), 1-11.
- Kopp, C. B. (1982). Regulation of distress and negative emotions: A development view. *Developmental Psychology*, 25(3), 343-354.
- Lee, C. J., & Kwak, K. J. (2000). Self-concept & social support according to bullying types. *The Korean Journal of Development Psychology*, 13, 65-79.
- Lee, E. K., & Kim, B. S. (2012). The effect of the familial protective factor and the individual protective factor on the adjustment of adolescent peer-bullying victim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3(2), 725-743.
- Lee, I. H. (2012). *Differences in coping behaviors in stress and social support depending on bullying participant rol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J. M., Lee, J. Y., & Jang, J. Y. (2012). The mediating effect of emotion regulation between daily stress and aggression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Korean Journal of Youth studies*, 19(5), 93-113.
- Lee, Y. J. (2007). *A study on the variables influencing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self-regulation: Children's self-concept and the relationship of the parents, teachers, friends*. Unpublished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 Lee, Y. J. (2008). *Moderating effects of friendship quality and coping strateg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peer victimization and lonelines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Seoul, Korea.
- Lee, K. N. (2010). Effects of parental variables, temperament and internal locus of control on self-regulation of children.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28(6), 47-57.
- Min, H. Y., & Yoo, A. J. (1998). Development of daily hassles coping scale for children.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36(7), 83-96.
- Mischel, W., Shoda, Y., & Peake, P. K. (1988). The nature of adolescent competencies predicted by preschool delay of gra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687-696.
- Moon, K. S. (2008). Academic stress and mental health of adolescents: The role of self-control and emotion regulation. *Korean Journal of Child Studies*, 29(5), 285-300.
- Nam, Y. O., & Han, S. C. (2007). A quest for influence of protective factors for prevention of adolescent violence.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5(1), 77-89.
- Noh, D. H. & Lee, S. (2010). The influences of self-regulation and stress coping behaviors of low-income children on behavioral problems. *Korean Journal of Child Psychotherapy*, 5(1), 85-102.
- Noh, S. Y. (2003). *Children's social competence in relation to parental role satisfaction and children's emotion regul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Oh, I. S. (2009). Mediating effect of self-control and aggression between daily stress and bullying behavior. *Journal of*

- Elementary Education*, 22(2), 49-70.
- Park, I. K. (2010). *Aggression and emotional regulation ability according to parent-adolescent communication*.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K. A. (2003). *Study on the school adjustment of school violence victims : focused on the protective factors*.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 Park, S. J. (2009). Developing patterns of victim-offending experiences in adolescent violence. *Korean Criminological Review*, 77(1), 71-94.
- Shin, J. S., & Chung, M. J. (2002). Relationship between bully/victim types and coping with stress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Koran Journal of Child studies*, 23(5), 123-138.
- Sim, H. O. (2002). Relationship between peer support, coping strategies and social skills. *Koran Journal of Child studies*, 21(1), 19-33.
- Sung, J. H., & Chung, M. J. (2007). School adjustment and protective factors of school violence victims. *Koran Journal of Child studies*, 28(5), 1-18.
- Thurber, C. A., & Weisz, J. R. (1997). You can try or you can just give up: The impact of perceived control and coping style on childhood homesickness. *Development Psychology*, 33(3), 508-517.
- Yoo, N. S. (2005). *A study on the correlation of the self-esteem with the stress of the middle school students in the family environment*. Unpublished master's thesis, Seonam University, Seoul, Korea.

<국문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이 대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학교폭력을 경험한 청소년들이 바람직한 대처행동을 하는데 도움을 주는 보호요인인 자기조절능력의 조절효과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연구대상은 대구광역시 소재하는 6개 중학교의 1, 2, 3학년 학생 중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은 중학생 319명이고, 조사도구는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학교폭력피해경험 척도, 자기조절능력 척도, 대처행동 척도로 구성된 질문지이다.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하여 요인분석, 적률상관관계분석, 단순회귀분석, 그리고 조절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첫째, 학교폭력을 많이 경험한 청소년일수록 공격적 대처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교폭력을 당한 경험이 다시 싸움이나 욕설 등의 공격적 대처행동으로 이어져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또 다시 가해자가 되는 폭력의 악순환의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해준다. 둘째, 청소년의 학교폭력피해경험이 대처행동에 영향을 주는 과정에서 자기조절능력이 조절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자기조절능력은 공격적 대처행동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기조절능력이 중요한 보호요인이자 조절요인이므로 자기조절능력을 향상하는 교육환경과 가족환경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